문영숙의 꼭 알아야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31〉

## 최재형 대동공보에 특별자금을 보내 안중근 하얼빈 의거 특집으로 보도 안중근 순국 후 안의사 가족 보살피며 돕다

문 영 숙
독립운동가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재형은 대동공보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지 이틀 뒤인 1909년 10월 28일, 의거 기사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그 후에도 대동공보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정황들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내보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는 이러한 대동공보를 감시하면서 최재형을 주시하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재판 내내 자신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적의 수장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했으니 만국공법에 의해 포로대우를 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변호사, 일본법정, 일본법에 의해 안중근 의사를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시켰다.

그 후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와 안중근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안의사의 동생들은 연해주로 망명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정근은 우수리스크에 살았다고 한다. 1911년 2월에 작성된 일본의 첩보자료는 안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이 최재형이 사는 얀치혜에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으며, 안의사의 처자가 지금 얀치혜 최재형 방에서 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1912년에도 안의사의 부인과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우수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선생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최재형 선생의 딸 올가의 기록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 순국 후에도 계속해서 안중근의사의 가족들을 보살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병합을 코앞에 둔 1910년 8월 20일 자 「대동공보」는 무력하게 일제에 침탈돼 가는 조국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피를 흘리는 방법 뿐"이라고 절규하였다. 또한 기록에 보면 최재형은 노우키에프스크 한족민회장(韓族民會長)으로서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당시 연해주에 거류하는 재한인으로서 최재형의 원조를 받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 같은 활동 중에도 노우키에프스크에 한인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진력하는 한편, 유류제조소를 두어 경영하였다. 이 제조소에는 교포 인부 약 1백여 명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일단 유사시에는 항일단체인 의병으로써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후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국을 병합했다. 이미 일본 제국은 한국 병탄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1905년 6월 러일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해 7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필리핀 방문 전에 일본에 들러 가쓰라와 만나 미국의 대 필리핀 권익과 일본의 대조선 권익을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다.

협약 내용은

첫째,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며,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 초 미국의 동아시아대륙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포츠머스 강화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이미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밝혔던 것이다.

즉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0년 이래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되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여 한국인에게 불가능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있게 통치한다면 만인을 위해 보다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피력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이 비밀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한국 문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9월에 포츠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일찍이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이 협정의 내용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한일병합 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자결했다. 러시아에서는 최재형과 가장 밀접하게 구국운동을 펼쳤던 이위종의 아버지이며, 러시아 공사인 이범진이 자결했고, 국내에서도 충정공 민영환, 매천 황현선생등등, 전국적으로 애국지사들의 울분이 들끓었다.

한일병합 이후 최재형도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들었다. 일본은 최재형을 러시아의 손을 빌려서 처치하기로 결정하고 첩보원들을 동원했다.

---

참고도서 : 박환 저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 저 〈독립운동가 최재형〉

김영희의 교육에세이

##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질까

김 영 희
CTN/교육타임즈 객원기자

장마로 꽤 무덥던 어느 날이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엄마가 상담차 나를 찾아왔다.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는 안 하고 자나 깨나 게임에만 빠져 산다고 속상해했다.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까지 생긴지 1년쯤 됐다며 어머니의 표정은 어둡고 안색도 그다지 안 좋았다. 며칠 전에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애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줄 알았다고 했다.

"착실한 재영이가 오늘 결석했는데 무슨 일 있는지요?"

"어, 그래요? 분명히 아침에 애가 등교하는 걸 보고 저는 출근했는데요."

뭔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아이를 수소문했더니 동네 게임방에 가 있는 게 아닌가. 근래에 게임방 출입이 잦은 거 같아 용돈도 안 주기로 했는데 무슨 돈으로 게임방 출입을 하나 싶었다. 곰곰이 생각하며 아이 책상을 뒤지다 말고, 화장대 서랍에 간직해둔 백화점 상품권이 없어진 걸 알았다. 그것을 몰래 가져가 게임비용으로 충당했다.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물으니 학교에 가기 싫다며 퇴학하고 싶다고 했단다.

중학교 1학년이면 대개 사춘기다. 사춘기는 미친 개 한 마리를 키운다고 여기면 된다고들 한다. 질풍노도, 천방지축의 대명사인 아이들은 혼돈 속에서 자란다. 그것 또한 성장통 중 하나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잠깐의 헛짓과 공백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아이들은 공부에 몰두하는데 내아이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 같아 부모는 애가 타지만 아이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다. 아직 성장기에다 미완성 단계다. 그 속에서도 배울게 얼마든지 많다. 비관적으로만 보는 부모의 관점도 문제일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모범생이길 바란다. 이제 모험생을 길러야 할 시대다. 호기심으로 모르는 분야를 개척하는 탐구정신은 미래에 살 아이들에게 커다란 자산이다. 공부가 컴퓨터 게임보다 더 재밌어 모험하며 공부하게끔 공부 방식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 천재들로 이세상이 가득 찰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고민을 할 일이지 아이 탓만 할 일인가.

"에밀"을 통해 어린이 교육과 자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루소도 공부를 재밌게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뼛속부터 디지털화된 요즘 아이들을 위해 학습 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각자의 소질에 맞는 것을 지향하도록 각 분야 최고봉에게 스킬과 안목을 배우게 하면 어떨까? 최고의 목수가 되려면 1 인자한테 기술을 익혀야 하듯,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게임 관련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2023년 11월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롤드컵' 한중 결승에서 대한민국 프로게이머인 '페이커' 이상혁은 통산 4번째 우승했다. 우리 아이들도 만들어진 게임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게임을 만들 기회를 마련이 중요하다. 부모도 옆집 아이가 하는 공부마다 다 따라 하게 강요하기보다 아이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시간을 할애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앞으로는 누가 지식을 많이 아는가 보다는 열린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컴퓨터 게임을 잘한다는 것은 기술의 접근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미래의 직업은 컴퓨터 관련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게임에 빠지는 것을 걱정스레 꾸중할 게 아니라 좀더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진정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 전문화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아이를 많이 격려해 주자. '내가 비록 잘하지는 못해도 부모한테 사랑받는다'는 믿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싹을 틔울 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 그 아이의 결과물이 아니잖은가. 단지 하라는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차이뿐이지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죄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과 싸운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닌 다음에야 아이의 잘못은 없다. 아이들은 백 번 변한다.

지인의 아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게임에 쏙 빠졌었다. 학원 간다며 게임방 가기 일쑤라 그애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아이와 소리지르며 싸우고 난리법석이었다. 객관적으로 보는 내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그애 엄마한테 얘기하곤 했다.

"공부가 다가 아니니 애한테만 목매달지 말고 차라리 엄마 발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세요."

"저도 그러구 싶은데 걔만 보면 속 터져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그 엄마와 통화를 자주해 아이의 근황을 체크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우선 미션을 주었다. 아이에게 절대로 화내지 말고 구박하지 않기, 아무거나 하루에 하나씩 칭찬해 주기, 예를 들면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밥도 먹으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아들은 책도 잘 보고 멋져, 꼭 성공할 거야! 를 엄마 침대맡에 써 붙이고 매일 실천하기로 나와 약속했다.

아이도 변하고 세상의 가치도 변한다. 과거의 성공방정식으로 아이를 재단하지 말아야 함이다. 공부만 잘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공부가 취미인 아이가 있는 반면 게임 등 다른 취미를 가진 아이의 분류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너그럽게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보자.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현대 창업주 회장 일대기 〈5〉

## 제2장 반드시 잘 된다고 확신한다

리 채 윤
CTN/교육타임즈 논설 위원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 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정주영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중에서-

### 위기를 기회로!

현대경영에서 위기는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 복병처럼 닥쳐올지 모른다. 위기가 닥치면, 조직 구성원들은 초조와 불안, 혼란에 휩싸인다. 이럴 때 진정한 리더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법이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같이 흔들리면, 조직은 침몰하는 수밖에 없다. 성공한 리더는 주어진 위기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다.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리더의 최대 능력이다.

정주영의 사업이 정상궤도를 향해 성장해 갈 무렵 6 · 25전쟁이 터졌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피난길을 떠났던 정주영은 부산에 도착해 우여곡절 끝에 미8군 후방기지 사령부의 공사를 따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주영은 특유의 기지를 발휘하여 현대건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갔던 것이다.

정주영은 시련이 닥치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즉 "건설이란 평화 시절에는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전쟁에 빠른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사업에는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라면서 공사수주에 전력을 투구했다.

정주영에게는 일본 아오야마(青山)학원 출신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동생 정인영이 있었다. 정인영은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미8군 공병감실 소속 통역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공병대 미군 장교를 형 정주영에게 소개했다. 정주영은 특유의 친화력과 사업수완을 발휘해서 부산 수영 지역의 미군 병사 간이 숙소 공사를 맡았다. 이 공사를 통해 정주영 ·인영 형제는 미8군 군납 건설업자로 도약하는 날개를 달게 된다.

이때부터 정주영이 전반적인 운영을 이끌어갔고, 정인영이 미군 공사 수주를 받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했다.

두 형제는 손발이 척척 맞아서 많은 관급 공사도 수주하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교통부 외자청과 외자 보관창고 건설 및 창고 보관대행과 관련한 공사 계약을 맺게 되었다. 외자 보관 창고는 정부 지원자금으로 신축된 공사였는데다 이 창고의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월 2백 만 환의 보관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보관료로 현대건설은 1950년 7월 부산시 중앙동 4가 15-3번지 제 5부두에 연건평 2천 1백 67평에 외자 보관창고 3동을 신축했다.

그리고 정주영은 전쟁의 와중에 새로이 '현대상운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외자창고 · 보관 대행업을 하면서 세 척의 선박을 구입하여 해운업에도 진출했다. 전쟁기간 중에 미군부대가 발주하는 공사, 비행장 활주로의 건설, 최전선의 미군 공병대 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주함으로써, 현대건설은 꾸준히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 고령교 복구 공사

고령교 복구공사는 정주영이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이 공사에서 정주영은 불굴의 도전정신과 사업가로서의 신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대건설은 1953년 고령교 복구공사라는 대규모 공사를 맡았다. 그때까지 정부가 발주한 공사 중 최대 규모였다. 당시 계약 금액이 5천 4백 78만 환이었는데, 이는 한 해 동안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 계약액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액수였다. 정주영이 그 고령교 복구공사에 큰 기대를 걸었음은 물론이다.

고령교는 대구와 거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그때 정부는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시급히 복구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1953년 2월, 내무부 토목국에서는 고령교 복구공사를 현대건설에 발주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크나큰 횡액을 안겨주고 말았다. 공사는 1경간 60미터짜리 교체 두 개와 수심 10미터 계곡에 열세 개의 교각을 설치하는 난공사였다. 교량의 상부구조는 모두 파괴된 상태이고 하부구조인 교각도 기초만 남아 있는 형편이어서 말이 복구공사지 실제로는 새로 다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파괴된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 작업상의 장애요인이 많았다. 낙동강은 계절에 따라 수심의 변동이 심했다. 겨울에는 모래가 쌓여서 수심이 얕아졌다가 여름이 돼서 물이 불어나면 수심이 겨울철의 몇 배로 깊어지는 바람에 기초공사를 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당시 국내에는 이렇다 할 건설 장비가 거의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장비라고는 20톤짜리 크레인 한 대, 믹서기 한 대, 고정식 컴프레서 한 대가 고작이었다. 20톤짜리 크레인이라는 것도 동란 전 내무부가 시공 중이던 남강댐 공사에 투입했다가 그대로 공사장에 방치해 버린 바람에 녹이 슬고 다 고장 난 것을 수리한 낡은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을 인력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 년이 지났다. 일 년이 지났지만 아직 열세 개의 교각도 다 세우지 못했다. 그동안에 물가는 곱절로 뛰었다. 기대를 걸었던 고령교 복구공사는 암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1954년에 들어서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고령교 착공 당시 700환으로 책정했던 기름단가가 2,300환이 되었고 앞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얼마나 더 비싸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정주영이 물가가 오르는 데서 오는 손해를 계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계약 당시만 해도 그는 넉넉잡고 일 년 반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 년 반 동안에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2배 이상은 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물가는 뛰고 장비는 빈약하고 공사는 진전이 없었다. 정주영은 지금 자신은 엄청나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지 자금조달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다녔다.

정주영은 회사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건설 사무실을 초동 자동차 수리공장 자리에서 소공동에 있는 삼화빌딩으로 방 두 개를 세 내어 옮겼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모두 접고 오직 고령교 복구공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령교를 완공한 보람이 있어 현대건설은 이후 국내 건설사에 주목될 굵직굵직한 공사를 맡으며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많은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끝까지 고령교 복구공사를 완공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한층 신뢰를 두텁게 한 현대건설은 정부공사를 발주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내무부는 현대건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 지어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특전을 부여했다.

때마침 정부는 195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 미국의 전후 복구 사업 계획에 따라 활발한 공사 발주를 전개하고 있는 때였다. 정주영은1955년 5월에 고령교 복구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 해 후반에 가창댐 확장공사를 필두로 낙동강 우곡제 개수 공사 1, 2차분, 강구교 공사, 호포교 공사, 내무부 중기공장 신축공사, 부산항 제4부두 신축공사 등 약 3억 4천여 만 환의 수주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듬해인 1956년에는 옥산교 공사를 비롯해서 가창 댐 확장 2, 3차 공사, 강구교 2, 3, 4차 공사, 안성교 1, 2차 공사, 낙동강 우곡제 3차 공사, 남산 육교 가설공사, 전매청 의주로공장 복구공사 등 약 5억 4천여 만 환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로서 정주영은 부채를 모두 갚아 신용을 지켰고, 그 고통 속에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을 일궈냈다. 정직과 성실로 주인의 신뢰를 얻어 쌀가게를 물려받았고, 믿을 만한 청년이라는 신용 하나로 자금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상품에 있어서의 신뢰,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 공급 계약에 있어서의 신뢰, 공기 약속 이행에 있어서의 신뢰, 공사의 질에 있어서의 신뢰, 그 밖의 모든 부문에 걸친 신뢰의 종합으로 오늘날의 '현대'를 이룬 것이다. 이 고령교 복구공사는 정주영의 경영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선례라 하겠다.

정주영은 1991년 3월 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신용과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흔히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저의 체험에 의하면 자본보다는 신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의 사업계획이, 나의 과거가 주위로부터 신뢰받을 수만 있다면 그 규모의 대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